

↑ 코스피 2643.13 (+6.03)	↓ 코스닥 719.41 (-5.74)
↓ 금리 (연율) 2.597 (-0.001)	↑ 환율 (원/달러) 1467.00 (+8.10)

18년 만에 바뀐
국민연금
과제는?
04



‘사즉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글로벌 경영 본격화

레이 쥘과 회동... 전장 협업 기대감

(샤오미 회장)

2년만에 中발전포럼 참석
샤오미 전기차 공장 찾아
전장사업 협력 방안 모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년 만에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이 모이는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하고 레이 쥘 샤오미 회장을 만났다. 이는 거대 중국에서 현지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경쟁사인 샤오미를 고객사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근 전기차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한 샤오미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장 사업’을 꼽은 삼성전자의 주력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장이 최근 ‘사즉생(死即生·죽기를 각오하면 산다)’의 각오로 비상 경영 의지를 다진 만큼, 위기 상



산불진화 나선 헬기

23일 오후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헬기 등으로 오전 내내 밤이 뒤흔던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헬기가 산불 진화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뉴시스

황을 타개할 쇠신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 이 회장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발전포럼(CDF)에 참석한다. CDF는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와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이 만나는 행사로 올해는 ‘전방위적인 발전 모멘텀 촉발과 안정적인 세계경제 성장 공동 촉진’을 주제로 열린다. 이 회장이 이 포럼을 찾은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2년만이다. 한국 측에서는

이 회장을 비롯해 과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기업 CEO로는 팀쿡(애플)을 비롯해 크리스티아누 아몬(윌컴), 호크 탄(브로드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케네스 그리핀(시타델 인베스트먼트), 스티브 슈워츠먼(블랙스톤), 빌 토마스(KPMG) 등 금융계에서도 자리한다.

이 회장이 CDF 참석을 추진한 건 최근 임원들에게 ‘사즉생’의 각오를 주문한 만큼, 전방위

적인 쇠신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고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질책하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미·중 갈등 상황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 등으로 인해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고위급 발전 포럼에 참석 차 중국을 방문해 샤오미 레이쥘 최고경영자(CEO)와 만남을 가졌다. /웨이보 캡처

社告



메트로경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힘든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25일(화)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어가는 난세(亂世·힘든 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재테크 전략이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국내외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고령화시대 재테크, 증여·상속세 절감, 부동산 투자 전략 등을 모색합니다.

- ◆ 행사명 : 2025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 일 시 : 3월 25일(화) 오후 2시~5시1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30분~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삼전·하이닉스·현대차 등 NXT, 종목 350개로 확대

3단계 매매체결대상 종목
시총 상위주들 대거 포함

코스닥시장에서도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시총 상위 1~5위 종목이 모두 포함됐다.

24일 출퇴근길부터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K-명품’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110개에서 350개로 확대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200개, 코스닥 상장사 150개다.

이번 3단계 매매체결대상 종목 확대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대거 포함됐다.

코스피 상장사 중 기아, 대한항공, 두산, 메리츠금융지주,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유한양행, 카카오, 크래프톤, 한국항공우주, 한화에너지스페이스, K T, LG 등도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가능하다.

지난 4일 거래를 시작한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장 외에도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운영한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거래량이 많은 시총 상위주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 종목이 10개였던 지난 4~14일 155억원 수준이었던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대금은, 종목이 110개로 늘어난 이후인 17~20일 1323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만 최근프리마켓에서 적은 유동성을 이용해 1주 내외의 주문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거래시 주의가 필요하다.

/허정운 기자 zekova@

m-커버스토리

정쟁에 지친 민심... ‘새로운 정치’ 요구 확산

분열의 정치, 언제까지
탄핵정국 속 사회갈등 극심
민생 위한 실용적 정치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사회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갈등과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와 차별하고 민생·경제에 새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정부는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0.73%포인트 차로 제

치며 탄생했으나, 취임 3년차 윤 대통령의 중간 평가로 치러진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대거 원내로 진입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채해병 순직 사건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의혹, 윤 대통령의 대과 한 단 ‘875원’ 발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스캔들 등으로 수도 권과 충청 민심을 잃었고 집권

여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강원 등지에서만 선전하며 ‘도로 영남당’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역대 최다 의석수를 기록한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국회에서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을 ‘줄탄핵’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명태균 특검 등을 발의하며 대통령 주위를 압박했다. 그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

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정지예행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과잉공세에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배로 이뤄진 군 내 사조직을 이용해 비밀리에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12월3일 비상계엄과 포교령을 선포하며 계엄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부정선거론과 반국가세력론을 폄하 민심에 등을 졌다. <3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메트로 한줄뉴스



- ▲尹 “정부·지자체, 가용 자산 총동원해 산불 진화하길”
- ▲한덕수 탄핵 선고 D-1... 총리실, 직무복귀 가능성 대비

- ▲권성동 “장외집회·정략적 행위 중단하고 재난 극복 집중해야”
- ▲원희룡 “미복귀 의대생 원칙대로... 즉시 학칙 적용하고 편입 공표해야”

- ▲한동훈 “‘청년 독박’ 국민연금법 거부권 행사 후 재논의해야”
- ▲박찬대 “내일부터 광화문 천막당사... 선고 촉구 결의안 처리도”

/사진 뉴시스